

여성음주문화 실태 연구: 여성이 술을 마실 때

박 희 랑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장 주[†]

명지대학교 여가정보학과

본 연구에서는 근래에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음주의 실태를 음주문제로서가 아닌 음주문화의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최근 1개월 동안 최소 1회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여성 90명이었으며, 면접을 통해 응답을 얻었다. 결과를 보면, 첫째, 가장 빈번한 음주상황은 '친구관련 상황'과 '가족관련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음주 동석자 유형으로는 '친구/선후배', '직장동료', '가족/친지' 등의 순이었으며, 가장 빈번하게 음용되는 주종은 '소주', '약주', '맥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주성향과 음주량의 살펴본 결과, 평균 2주에 1회 정도의 음주빈도를 보였으며, 1회 음주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약 반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후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요어 : 여성음주, 음주문화, 음주문제.

[†] 교신저자 : 이 장 주,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학교 여가정보학과
E-mail : leejj@mju.ac.kr

우리나라 특히 성인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친숙한 음료를 꼽으라면 술이 빠지지 않는다. 기분 좋을 때나 나쁠 때, 축하하고 싶을 때나 위로하고 싶을 때, 고마움을 전할 때나 서운함을 토로할 때 등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의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술이다. 이렇게 일상생활과 밀접하다보니 술을 소비하는 소비량도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보고(WHO, 1999)는 것은 그리 놀라울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현상은 비단 오늘날에 새롭게 등장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중국 진(晉)나라 때 편찬된 『삼국지』 ‘위지(魏志)’에 보면 우리 민족 고대 국가인 부여·고구려·마한 및 진한 사람들이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기록이 있고, 중국 남북조 시대에 편찬된 『후한서(後漢書)』 ‘동이전(東夷傳)’에도 각 부족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기록이 보이는 바 우리 민족과 술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녔다.

술은 그 재료가 곡식이란 점에서 먹을 것이 풍부하지 못했던 근현대 이전의 역사를 고려해 볼 때, 아무나 마실 수 있는 먹거리라기보다는 제사와 같은 중요한 행사 때만 사용하는 신성한 음식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증거는 술을 마시는 예법을 정리한 『향음주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향음주례는 세종대왕이 주(周)나라 예법을 바탕으로 그 절도를 가다듬어 각 향교나 서원에서 학생들에게 교과 과목으로 가르치게 했던 6례(六禮), 즉 관(冠), 혼(婚), 상(喪), 제(祭), 상견(相見), 향음주(鄉飲酒)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선비들에게 중요한 예절이었다(한태선, 2000). 이렇듯 귀하고 신성한 음식이기 때문에 예를 갖추어 마시도록 권고된 술은 성인 남성인 선비들에게만 접축이 허락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인격이 덜 수양된 어린아이나 여성, 하인들은 접하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결국 이런 유교적 전통은

음주를 여성과 거리가 먼 사회 문화적 규범으로 정착되었다(한태선, 1998).

최근의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여성의식 변화 및 음주에 대한 사회 규범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남성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음주의 영역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2000)에 의하면, 여성의 음주경험율이 1997년 54.7%에서 2000년에는 80.7%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의 음주경험율 증가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2001).

여성들의 음주경험은 남성들의 경험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음주 시작 연령이 늦고, 음주패턴에서 남성보다 술을 마시는 빈도와 양이 적으며, 혼자 마시는 경우가 많으며(장승옥, 1998), 음주의 빈도와 강도에 있어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압력 등의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이민규, 1993). 또한 대표적인 여성의 음주폐해라고 여겨지는 알콜성 태아증후군으로 인한 기형아의 출산은 여성의 음주문제가 남성들의 음주문제와 구분되는 독특성이 시사하며, 이러한 시사점은 남성들의 음주문제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김광기, 1996). 이런 점에서 여성의 음주는 남성들의 음주와 다른 특성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남성음주와 구분하여 연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보다 먼저 여성음주에 관심을 둔 서구의 경우에도 1970년대 중반에야 이르러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여성음주를 남성음주와 구분되는 현상으로 접근하는 추세이다(Moira, 1997; Richard, Wilsnack & wilsnack, 1997;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2001, p. 203 재인용).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여성음주에 대한 연구는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선 몇몇 안 되는 여성음주에 관한 연구들(예를 들면, 김경빈, 1992; 김광기 1996; 김광일, 1991)은 주로 알콜중독자와 같은 특정 피해자 집단에 편중되어있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 여성을 대상으로 음주양상에 대해 연구는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2001)의 연구 이외에 찾기 힘들었다. 환자이건 정상인이건 여성음주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는데, 그것은 음주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음주문제간의 관련성에 집중하는 ‘부적응 행동으로써 음주’에 접근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며, 이런 특징은 일반적인 음주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음주에 관한 연구는 음주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부적응 행동’으로서의 음주에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을 기존 연구들은 보여왔다. 기존 연구를 개관해 보면, 크게 음주문제의 선행요인으로써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음주동기에 관한 연구와 음주의 정도가 구체적 장면에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개별음주문제연구 등 2개 영역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는가’에 대한 동기를 다루는 음주동기 연구는 음주동기의 하위 요인이 4가지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Cox & Clinger, 1988, 1990; 신행우, 한성열, 1999 참조). 이들 하위 동기를 살펴보면, 첫째, 심심하고 따분한 기분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고양동기’, 두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마시는 ‘대처 동기’, 세 번째, 술을 마시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권하기 때문에 마시는 ‘동조동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시는 ‘사교동기’가 그것이다(신행우, 한성열, 1999). 이러한 동기들과 문제행동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김용석, 2000;

신행우, 1999)에 의하면, 대처동기를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음주문제를 가장 잘 예언해 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사교동기와 동조동기 역시 대처동기보다는 작지만 음주의 부작용을 예측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고양동기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음주행동에 관한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음주행동과 구체적 장면에서의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다. 이들 연구들이 설정한 구체적 장면들은 음주운전(김통원, 2001; 채규만, 류명은, 2002; 최상진, 손영미, 김정인, 박정열, 2001; 한덕웅, 이민규, 2001), 산업재해(김상대, 김용원, 김대회, 김정남, Dreikebaum, 2000;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가족갈등(김재엽, 1998; 유채영, 2000; 윤명숙, 1999), 범죄행동(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및 학교 및 기타 사회적 적응(김옥수, 김계하, 2000; 김인숙, 김준숙, 안성순, 1995; 문정순, 양수, 유양숙, 2001; 손애리, 2002; 이원재, 2001)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들은 구체적 장면에서 음주문제의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대부분이며, 이를 통한 문제행동의 발생이 빈번하거나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변수(예를 들면, 성별, 연령, 성격, 스트레스, 경제력 등)을 가진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이들의 대체적인 결론은 음주문제에 취약한 변수를 지닌 피해자들이 음주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예방할 수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들은 음주행동을 정상적인 성인의 행동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란 점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김광기, 1996).

음주행동을 음주문제와 연관시키는 편향된 연구경향은 자칫 현실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음주경험자들은 음주와 관련된

부작용만을 경험하지는 않으며, 설령 부작용을 경험하더라도 음주행동의 순기능적인 효과(예를 들면, 원활한 사교적 혹은 업무관계 유지나 기분의 고양 등)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반복적인 음주 경험을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며 살지만 대부분 비교적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며, 반대로 이런 술이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음주행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상대적인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행동에 관한 연구들만을 본다면, 그 속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상적인 음주상황은 찾아보기 힘들며, 음주행동의 결과에는 늘 음주문제, 음주폐해 등 부적응 행동을 수반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연구방향의 편중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음주문제가 발생하는 바탕인 음주문화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문제를 해결하도록 고안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당연히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일상생활 속의 음주행동을 문제행동이 아닌 정상행동으로 파악하여 일상의 하위문화로써 음주문화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었다. 연구의 대상은 근래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여성음주경험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여성음주행동에 대한 정상적 행동 접근이 전무한 상태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어떤 술을 얼마나 마시는가에 대한 기술적(記述的) 성격을 지닌다.

연구방법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최근 1개월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평균연령: 34.0세)의 서울거주 성인 여성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선정은 20대, 30대, 40대의 연령구분을 기준으로 각각 30명씩 동일한 수의 대상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여성음주문화를 탐색하고자 하였던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개방형 질문지의 형태로 연구자들이 직접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1) 일반적인 인구 통계학적 질문(표 1 제시), 2) 주로 술을 마시는 경우나 상황은 어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빈도(%)
결혼여부	기혼	76(84.4)
	미혼	14(15.6)
학력	고졸이하	42(46.7)
	대재이상	48(53.3)
직업	주부	44(48.9)
	화이트칼라	27(30.3)
	블루칼라	14(15.6)
	학생	5(5.6)
월평균 가족수입	200만원이하	6(6.7)
	201-300만원	31(34.4)
	301-400만원	27(30.0)
	401-500만원	14(15.6)
	501만원 이상	12(13.3)
합 계		90(100)

상황입니까? 3) 자주 마시는 술자리 유형 및 자주 마시는 술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4) 선호하는 술자리 유형 및 선호하는 술 종류는 무엇입니까? 5) 월 평균 음주 횟수 및 음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등 5개의 하위 영역에 대한 반응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한 면접자가 조사대상자를 면접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얻었다. 조사 시기는 2003년 3월경에 실시되었으며, 대략 응답시간은 15분 내외가 소요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응답 완료와 동시에 소정의 사례를 받았다. 분석방법은 응답의 유형별로 구분하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탐색적 성격을 고려하여 빈도분석과 상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음주량 및 음주량의 변화에 대해서만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음주 상황

여성들의 구체적인 음주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귀하께서 술을 드시게 되는 구체적인 경우나 상황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복수응답 가능한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의 반응은 그 유사한 응답내용들을 범주 및 유형화시키는 내용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소 3개 이상의 반응(1% 이상)을 중심으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2개 이하의 소수 응답반응은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

결과를 보면 여성들이 술을 마시는 주된 상황

표 2. 구체적인 음주 상황

응답범주 및 유형	빈도(%)
1. 친구 관련 상황	97(40.3)
친구 모임	51(21.2)
동창 모임	18(7.5)
친목모임	16(6.6)
부부동반 모임	7(2.9)
이웃과 함께	5(2.1)
2. 가족 관련 상황	81(33.6)
가족과 함께	45(18.7)
배우자(남자친구)와 함께	28(11.6)
친척(친지) 모임	8(3.3)
3. 회사/일 관련 상황	31(12.8)
회식	17(7.1)
회사 동료들과 함께	11(4.5)
업무상 손님접대	3(1.2)
4. 특별한 날(생일, 기념일, 경조사 등)	12(5.0)
5. 기타	20(8.3)
합계	241(100)

은 ‘친구’, ‘동창’, ‘친목’, ‘부부동반’, ‘이웃’ 등과 모임을 통해서 마시는 상황으로, 이 상황을 ‘친구 관련 상황(40.3%)’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친구관련 상황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는 것은 주로 여성이 개인적/사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가장 빈번하게 술을 마시며, 이들 상황에서 음주는 모임의 분위기를 북돋아 주어 친교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여성들의 음주상황에서 가장 빈번한 동기는 ‘사교 동기(social motive)’라고 사료된다(신행우, 한성열, 1999 참조). 두 번째 순서로는 ‘가족’, ‘배우자’, ‘친척/친지’ 등의 하위 응답범주를 보인 ‘가족관련 상황(33.6%)’이다. 중복응답이란 점을 고려하더라도 총 응답자가 90명 이란 점을 고려할 때 가족관련 상황 응답이 81건

이 나왔다는 사실은 성인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가족여가로서의 음주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 ‘회식’, ‘회사동료’, ‘업무/접대’ 등의 ‘회사/일 관련 상황(12.8%)’으로 조사되었다. 앞의 두 상황이 주로 사적(私的) 영역이라면, 회사/일 관련 상황은 주로 여성들의 공적(公的) 영역에 속하는 음주 상황들이라고 보여진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음주는 사회적 영역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개인적 또는 사적 영역의 사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생일’, ‘기념일’, ‘경조사’ 등 ‘특별한 날 상황(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응답이 2건 미만의 소수 응답들을 ‘기타(8.3%)’ 응답범주에 포함시켰다.

자주 마시는 술자리 유형 및 주종

현재 누구와 술을 자주 마시며, 그때 어떤 술을 마시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술자리 유형을 6가지로 나누었다. 그 유형은 ‘친구/선후배’, ‘가족/친지’, ‘배우자/이성친구’, ‘직장 동료’, ‘직장상사/어른들’, ‘업무/접대’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나눈 유형이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자주 술을 마시는 유형별 순위를 1위에서 6위까

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각 유형마다 주로 마시는 술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주 마시는 술자리 유형으로는 ‘친구/선후배’가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직장 동료’, ‘가족/친지’, ‘배우자/이성친구’ 등이 2위군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장상사/어른’이나 ‘업무/접대’는 상대적으로 드문 술자리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술자리 동석자의 빈도는 가족보다는 친구나 직장동료와 같은 개인적 친분의 사람들과 주로 음주가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직장상사/어른’이나 ‘업무/접대’와 같은 공적 영역의 음주는 자주 경험되는 현상이 아니라는 표 2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다.

일반적인 술자리 유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음용되는 주종은 ‘소주’로써 46.2%가 자주 마시는 주종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주’가 25.1%로 뒤를 이었으며, ‘맥주’는 19.8%의 응답자가 선택하여 세 번째 빈도의 주종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 과실주(매실주, 와인), 양주, 막걸리/동동주 등은 18.9%가 자주 음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이 자주 마시는 이러한 주종은 술에서 알콜 함량이 높은 순으로 배열 된 바, 이는

표 3. 자주 마시는 술자리 유형 및 주종

술자리 유형(평균순위)	자주 마시는 술1(%)	자주 마시는 술2(%)	자주 마시는 술3(%)
1. 친구/선후배(1.91)	소주(43.0)	맥주(26.7)	약주(24.4)
2. 직장동료(2.60)	소주(61.4)	맥주(21.1)	약주(14.0)
3. 가족/친지(2.71)	소주(40.2)	약주(32.2)	맥주(20.7)
4. 배우자/이성친구(2.85)	소주(40.0)	맥주(26.3)	약주(23.8)
5. 직장상사/어른(4.44)	소주(50.0)	약주(22.2)	맥주(13.0)
6. 업무/접대(4.60)	소주(42.9)	약주(34.3)	맥주(11.4)
계	소주(46.2%)	약주(25.1)	맥주(19.8)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에 취약한 여성들은 알콜 함량이 낮은 저도주를 선호할 것’이라는 상식적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술자리 유형과 음용하는 주종에서의 특징으로는 우선 ‘직장 동료(61.4%)’나 ‘직장상사/어른(50.0%)’ 등 직장관련 술자리에서는 소주의 음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주는 다른 주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란 점과 적은 양으로도 음주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독주라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선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친구/선후배’와 ‘배우자/이성친구’의 술자리 유형에서 맥주와 약주의 음용빈도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점이다. 이는 술자리의 동석자의 유형은 다르지만 술자리를 갖게 만드는 동기와 술자리의 기능이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사료된다. 세 번째로는 ‘가족/친지’와 ‘업무/접대’ 술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약주가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술자리 유형의 특성은 자신보다는 술자리 동석자를 더 많이 배려해야할 상황이란 점에서 약주가 주로 음용되는 술자리의 특성을 보여준다.

선호하는 술자리 유형 및 주종

앞의 자주 마시는 술자리 유형 및 주종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선호하는 술자리와 주종을 응답자에게 질문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술자리 유형으로는 ‘친구/선후배(1.81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자/이성친구(2.44위)’, ‘가족/친지(2.75위)’, ‘직장동료(2.86위)’, ‘직장상사/어른(4.61위)’, ‘업무/접대(5.00위)’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결과를 앞의 결과(표 3)와 비교해 보면, 가장 선호하는 술자리와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마시는 술자리 유형은 동일했다. 하지만 그 후의 순서에서 차이를 보이는 바, 앞에서 4위와 3위를 차지했던 ‘배우자/이성친구’와 ‘가족/친지’와의 술자리가 2위와 3위로 조사되었으며, 자주 경험하는 술자리 유형의 2위였던 ‘직장동료’와 술자리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4위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순위를 고려할 때 자주 경험하는 술자리와 경험하고 싶은(선호하는) 술자리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이성친구의 술자리 빈도와 선호도 순서는 2.85와 2.44였다. 이는 배우자/이성친구와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바라는 것만큼 술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함축한

표 4. 선호하는 술자리 유형 및 주종

술자리 유형(평균순위)	선호하는 술1(%)	선호하는 술2(%)	선호하는 술3(%)
1. 친구/선후배(1.81)	소주(32.6)	약주(32.6)	맥주(29.1)
2. 배우자/이성친구(2.44)	맥주(30.0)	약주(27.5)	소주(25.0)
3. 가족/친지(2.75)	약주(39.1)	소주(31.0)	맥주(19.5)
4. 직장동료(2.86)	소주(42.1)	맥주(29.8)	약주(21.1)
5. 직장상사/어른(4.61)	소주(38.9)	약주(31.5)	맥주(14.8)
6. 업무/접대(5.00)	소주(37.1)	약주(37.1)	맥주(11.4)
계	소주(34.4)	약주(31.4)	맥주(22.4)

다. 반면 직장동료의 경우는 실제 빈도와 선호도 순서에서 2.66과 2.86으로 조사된 바, 이는 실제 술자리가 바라는 만큼 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영역의 술자리인 ‘직장상사/어른’, ‘업무/접대’의 경우는 실제 빈도(4.44, 4.66)가 선호도(4.61, 5.00)가 하위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더 낮다는 점은 이러한 공적 영역의 술자리에 대해 여성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에 대한 간접적 시사를 준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술자리에서 선호되는 주종은 소주(34.4%), 약주(31.4%), 맥주(22.4%), 기타(1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선호 주종은 실제 음용하는 주종과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그 세부내용에서 약간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소주의 실제 음용빈도는 선호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주와 맥주는 선호도가 실제 음용빈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이 약주나 맥주를 마시는 것을 선호하지만 실제에서는 소주를 주로 마시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선호하는 주종에서 술자리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배우자/이성친구’와의 술자리에서는 맥주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친지’와의 술자리에서는 약주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구/선후배’와 ‘배우자/이성친구’ 유형의 술자리에서 자주 마시는 주종의 패턴이 비슷했던 표 3과 달리 선호하는 주종에서는 ‘친구/선후배’와의 술자리에서 소주와 약주가 함께 높은 빈도를 맥주가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인 반면, 배우자/이성친구와의 술자리에서는 정반대로 맥주가 가장 선호되고 약주, 소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음주성향 및 음주량

여성들의 일반적인 음주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1달간의 음주 횟수, 현재 대비 과거 음주량, 현재 대비 미래 예상 음주량 및 1회 음주량을 질문하였으며, 결과는 각 측정치들의 기술 통계치들과 함께 표 5에 제시되었다.

우선 음주성향 및 음주량의 기술 통계치를 살펴보면, 최근 1개월 동안의 음주 횟수는 평균 2.66회로 조사되었으며, 이런 결과를 단순화 시켜 보면 여성음주행동은 대략 2주에 1번 정도 술을 마신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대비 과거의 음주량에 대한 조사는 현재 음주량을 100이라고 놓고 과거에 음주량을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과거 음주량은 평균 100.3으로 거의 현재 음주량과 차이가 없는 것으

표 5. 음주 횟수 및 음주량간의 단순상관

	1	2	3	평균	SD
1. 최근 1개월 음주횟수	1.000			2.66	2.54
2. 과거 음주량	.359**	1.000		100.3	37.6
3. 미래 음주량	.187	.472**	1.000	90.8	33.7
4. 1회 음주량(소주기준)	.594**	.330**	.254*	.44	.42

주. * p<.05, ** p<.01 아래 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현재를 100으로 놓고 미래의 예상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 90.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현재보다 미래에 술을 적게 마시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으며, 대략 현재보다 10%정도의 적은 음주량이 예상음주량으로 보고 되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음주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양한 주종들을 절대 알콜량으로 환산하였으며, 다시 이를 일반적인 소주의 1병(알콜도수 25도(%), 크기 360ml)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다¹⁾ 그 결과 월 1회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음주량은 1회 음주 시 0.44병(소주 기준)을 마시는 것으로, 대략 1회 음주 시 소주 반병 정도를 마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들 측정기간의 단순상관을 살펴보면, 최근 음주횟수와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은 1회 음주량으로 .594였으며, 과거 음주량(.359)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즉 현재 음주를 자주하는 사람은 음주량 또한 많은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과거부터 많이 마셨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과거 음주량과 상관이 높은 항목은 미래 예상된 음주량과 .47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회 음주량과도 .33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과거에 형성된 현재의 음주 습관이 미래에도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단순화 시켜보면, 과거의 음주량이 많은 사람이 현재도 많이 마시며 앞으로도 많이 마실 것

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알콜도수 4.5도(%)인 맥주 1병(500ml)을 마셨다면, 이 사람이 마신 알콜의 양은 22.5ml이다. 이것을 알콜도수 25도(%)인 소주 1병(360ml)의 알콜 양(90ml)과 비교하면, 맥주 1병을 마신 사람은 대략 0.25병의 소주를 마신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좀더 단순화시키면, 소주 1병을 마신 사람은 맥주 4병을 마신 사람과 알콜 음용정도가 같다.

이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흔히 주변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술을 줄여야겠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이들의 말은 단순히 말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보여준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음주량은 최근 음주횟수와 가장 높은 상관(.594)을 보였으며, 과거음주량(.330), 미래 음주량(.25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5에서 제시된 측정치들이 결혼여부, 직업, 학력, 소득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수(demographic variables)들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 이외의 변수²⁾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직업에 따른 음주 횟수 및 음주량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우선 직업에 따른 최근 1달간 음주 횟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각 직업들 간의 음주 횟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3,86) = 4.01, p < .05$). 사후분석(Post Hoc test) 결과, 블루칼라 및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음주횟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주부와 학생들의 음주횟수는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 직업들 간의 현재 대비 과거의 음주량에 대한 분산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작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차이($F(3,86) = 2.85, p < .05$)가 있었으며, 특히 주부들의 과거 음주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바꾸어 말하면, 주부들은 과거보다 현재 더 많은 양의 음주를 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

2) 직업군의 사례수 차이가 크기, 특히 학생의 사례수가 작기 때문에 동변량성(equality of variance)의 가정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직종간의 음주패턴의 경향을 보여주는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연구자의 판단아래 분산분석표를 제시하기로 한다.

표 6. 직업에 따른 음주횟수 및 음주량 평균

	최근 음주 횟수	과거 음주량	미래 음주량	1회 음주량
주부	2.02	89.2	85.9	.30
화이트 칼라(사무직)	2.89	107.7	89.6	.53
블루 칼라(생산, 판매직)	4.50	116.7	87.8	.67
학생	1.80	112.0	150	.50
F값(df=3,86)	4.01*	2.85*	6.50**	3.63*

구된다. 세 번째, 미래 예측된 음주량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가장 큰 차이($F(3,86) = 6.50, p < .01$)를 보였는데, 특히 학생 집단의 음주량의 증가가 눈에 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취업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스트레스 대처의 일환과 사회 진출 시 동료들과의 친교관계를 예상하여 학생집단이 음주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은 주부 및 직장인 집단은 10%이상 음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것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직업들 간에 1회 음주량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역시 차이($F(3,86) = 3.63, p < .05$)가 있었는데, 주부들의 음주량이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음주량을 직종별로 보면, 주부들은 대략 소주 기준 1/3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과 화이트칼라 직종에 종사자는 대략 소주 반병을 마시고, 블루칼라 직종의 종사자는 2/3병을 마시는 것으로 주부들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의 양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와 나머지 직업집단 간의 음주량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나머지 직업집단이 가정 밖의 활동이 많다는 점에서 음주행동은 가정 내의 행동이라기보다는 가정 밖 즉 사회적 행동이라는 우리사회의 음주에 대한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는 음주에 관한 연구들이 음주문제에 편중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의 음주행동을 문제행동이 아닌 정상행동으로 파악하여 일상의 하위문화로써 음주문화를 탐색해보고자 하는 목표로 수행되었다. 여기서는 주요한 결과와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한 발견으로, 여성들의 음주상황은 ‘친구’, ‘동창’, ‘친목’, ‘부부동반’, ‘이웃’ 등 ‘친구관련 상황(40.3%)’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 ‘배우자’, ‘친척/친지’ 등의 하위 응답범주를 보인 ‘가족관련 상황(33.6%)’, ‘회식’, ‘회사동료’, ‘업무/접대’ 등의 ‘회사/일 관련 상황(12.8%)’, ‘생일’, ‘기념일’, ‘경조사’ 등 ‘특별한 날 상황(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음주상황은 여성음주의 특성을 나타내는 바, 이들 상황에서 음주는 모임의 분위기를 돋우어 친교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여성들의 주된 음주 동기는 ‘사교 동기(social motive)’란 점이 시사된다(신행우, 한성열, 1999). 또한 음주가 가족과 함께 이루어지는 빈도

(33.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서 성인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가족여가로서 음주가 정착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흔히 술은 전통적으로 사회적 영역 특히 남성들의 영역으로, 가정의 영역이나 여성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한태선, 2000). 이러한 인식의 결과는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는 고급 술집의 번창이나 주류제조사에서 흔히 하는 판촉물인 달력에 등장하는 거의 전라(全裸)의 여성모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왜곡된 성역할을 부추기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음주문화는 성적 일탈을 조장할 뿐 아니라 가정 폭력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가정의 불행으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의 음주문화에 참여는 남성중심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약화 혹은 감소시킬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여겨진다. 또한 음주가 가족 내의 여가문화로 유입되면서 가족들 간의 응집성을 높여주는 매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가족여가문화로써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둘째, 성인 여성들이 자주 마시는 술자리 동석자 유형으로는 ‘친구/선후배’가 가장 높은 순위로 조사되었으며, 그 뒤로 ‘직장동료’, ‘가족/친지’, ‘배우자/이성친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장상사/어른’이나 ‘업무/접대’는 상대적으로 드문 술자리 유형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술자리 유형에서 가장 빈번하게 음용되는 주종은 ‘소주’로써 46.2%가 자주 마시는 주종이라고 보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약주(25.1%)’, ‘맥주(19.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에 취약한 여성들은 알콜 함량이 낮은 순한 술을 선호할 것’이라는 상식적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여성 음주 실제(표 3)와 여성들이 선호하는 음주 상황(표 4) 및 선호 주종간에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여성들이 원치않는 술자리에 수동적으로 참석한다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이 원하는 술을 적극적으로 선택해 마시고 있음이 시사된다.

셋째, 성인 여성들의 음주성향과 음주량의 살펴본 결과, 평균 2주에 1회 정도의 술자리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회 음주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약 반병 정도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은 과거와 비교해 거의 같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미래에는 좀 더 적은 양의 술을 마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여성 중 약 절반가량이 1회에 최소한 소주 4-5잔을 마시고, 1-2주에 한번 이상 꼴로 마신다는 최근의 조사결과(신연희, 2003)를 통해서도 지지되었다. 직업에 따른 음주성향 및 음주량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직장에 근무하는 여성일수록 최근 1달간 음주횟수와 1회 음주량이 높게 조사되었다. 주부들의 경우 대부분의 음주관련 측정치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음주문화는 가정문화의 일부라기보다는 가정 밖 사회 문화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주부들의 경우 음주량과 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을지라도 과거에 비해 현재의 음주량이 크다는 점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여성음주에 관한 연구결과는 이런 변화의 양상을 해석해주는 데 도움을 준다. 신연희(2003)가 실시한 ‘여성 음주자의 특성과 음주원인’의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음주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가정과 직장 생활 내에서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주부들의 음주량 증가는 우려할 상황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종과 음주상황 간의 연관성이 시사되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들과는 주로 ‘소주’가 음용되는 반면, 직장상사나 가족과의 음주상황에서는 ‘약주’가 선호되었다. 이런 점은 음주상황에 따른 주종이 세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각각의 주종은 그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이 시사된다.

이상의 연구 성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제한점으로는 월 1회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점과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학력과 경제력이 우리나라 평균 여성들보다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여성 전체의 음주행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은 연구의 목적 상 여성음주문화를 있는 그대로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설정되었지만, 좀 더 세밀한 여성음주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여성을 전집으로 삼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인 여성음주문화에 집중한 나머지 세밀한 음주상황을 묘사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보통 음주는 몇 차를 가는지, 혹은 1차에서 선호되는 주종은 무엇인지, 얼마나 마시는지, 또한 술값은 얼마나 되는지, 걱정 음주량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주종 결정자는 누구인지 등의 일반적인 상황과 특정 술을 마시며 주로 나누는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상황이 나 기분(예를 들면, 기분이 좋을 때 혹은 나쁠 때 등)에 따라 주종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지 등 음주와 관련된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음주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경빈 (1992). 한국에서 알코올중독 치료모델. 문화와 주정중독세미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김광기 (1996).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22(1), 152-187.

김광일 (1991). Alcoholic Disorder in Korea. 정신건강연구, 9, 131-147.

김상대, 김용원, 김대희, 김정남, Krikebaum, H. (2000). 직장인 음주실태와 산업재해 유발사례: 한국과 미국 독일의 경우 비교연구. 경제학논집, 8(2), 23-54.

김옥수, 김계하 (2000). 남녀 대학생들의 우울과 음주양상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과학, 12(1), 43-53.

김용석 (2000). 대처수단으로서의 음주동기와 음주행위/음주문제간의 관계- 경인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9, 5-23

김인숙, 김준숙, 안성순 (1995). 20대 음주생활에 관한 연구: 청주지역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국생활과학학회지, 4(1), 113-122.

김재엽 (1998). 스트레스 및 알콜이 아내구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도시 빈곤가구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03-118.

김통원 (2001) 도시직장인의 증주 및 음주운전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가족복지학, 7, 35-57.

문정순, 양수, 유양숙 (2001).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의 음주실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73-82.

손애리 (2002). 서울시 중학생의 흡연 및 음주행동별 성행도 위험정도.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8(4), 334-342.

- 신연희 (2003). 여성 음주자의 특성과 음주원인. '여성음주'에 대한 특별세미나.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 신행우. (1999). 음주동기와 음주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93-109.
- 신행우, 한성열 (1999). 음주동기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1), 77-92.
- 유채영 (2000) 가족형 문제음주자와 비가족형 문제음주자의 비교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223-249.
- 윤명숙 (1999). 노숙자들의 음주문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101-122.
- 이민규 (1993) 음주행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2(1), 165-179.
- 이원재 (2001). 대학생의 음주양태. 보건과 사회과학, 10, 79-95.
- 장승옥 (1998). 여성알콜중독과 치료. 주류문화, 82-88.
- 채규만, 류명은 (2002). 성격, 인지, 사회적 환경 및 음주행동과 음주운전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63-789.
- 최상진, 손영미, 김정인, 박정열 (2001). 음주운전 결정요인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19(6), 33-47.
- 한국산업안전공단 (1999). 근로자의 음주와 안전. 한국산업안전공단.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2000). 한국인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 한덕웅, 이민규 (200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음주운전 행동의 설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5(2), 141-158.
- 한태선 (1998). 음주의 사회문화적 의미. 대한보건사회문화연구원.
- 한태선 (2000). 적정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 접근. 대한보건협회학술지. 26(4), 383-392.
- 허은정, 김명순, 김광기 (2001). 일부 지역 여성의 음주양태 및 음주관련문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5(1), 202-215.
- Cox, M., & Clinger, E. (1988). A motivational model of alcohol us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7, 168-180.
- Cox, M., & Clinger, E. (1990). Incentive motivation, affective change, and alcohol use: A model. In M. Cox (Ed.), *Why people drink*(pp. 291-311). New York: Gardner Press.
- Moir, P. (1997). *Women and Alcohol*. New York, FAB, 1-51.
- Richard, W., & Wilsnack, S. C. (1997). *Gender and Alcohol: Individual and Social Perspectives*. New Jersey: Rutgers Center of Alcohol Studies.
- WHO. (1999). *Alcohol: A Global Overview*. WHO.

Research on culture of women's alcohol consumption: When women drink?

Hee Rang Park

**Dep.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angju Lee

**Dep. of Leisure Studies & Information,
Myongj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roach the recent increase of women's drinking condition via cultural view rather than a problematic view.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90 women who were 20 years and older of age with experience of drinking more than once in the past 1 month. The contents were deriv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In conclusion, firstly, the most frequent drinking occasion is 'friend relating situation' and 'family relating situation'. Secondly, in the case of drinking partner pattern it was in the order of 'friend/elder/junior', 'colleague', and 'family/relative'. In addition, the types of drink were in the order of 'Soju', 'Traditional wine', and 'Beer' etc. Thirdly, observation of drinking trend and amount yielded the following. Average drinking frequency was once every two weeks. In addition, the average amount was half a bottle of soju per occasion. Furthermore, the suggestion of key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Woman alcohol consumption, Drinking patterns, Alcohol-related problems